

『영미연구』

제56집 (2022): 189-214

<http://doi.org/10.25093/ibas.2022.56.189>

학부 문화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한 교육방안 모색

홍 승 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윤 미 선

동국대학교

최 은 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문초록]

번역 교육은 언어적 차원만이 아니라,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등 문화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부 번역교육이 문화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탐구하고자 영미권에서 출판된 문화텍스트, 소설 『파친코』를 문화번역 실습과정에 적용하고 기계번역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였다. 『파친코』는 한국계 미국 작가 이민진이 2017년 미국에서 출간한 작품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인 1980년대까지 4대에 걸친 제일교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소설 속에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요소는 기계번역 결과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았고 오류도 많았다. 학생

* 제 1저자: 홍승연

들은 실습 과정에서 파친코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보고 원문 속 문화적 요소는 무엇이며, 그 문화적 요소를 도착문화권에 맞게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결과 문화번역 수업에서 학부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 및 문화특정항목에 대한 개념정리가 더욱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텍스트 상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맥락상 문화적 요소로 판단되는 지점을 학생들이 충분히 논할 수 있도록 원문 텍스트에 대한 선행학습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문화텍스트 속에 숨겨진 문화적 암시정보를 찾아내어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번역교육 과정에서 기계번역을 학습도구로 적용하고 문화텍스트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활용하면 번역에 대한 학생들의 사유를 효과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문화번역 교육, 문학번역, 기계번역활용 교수법, 문화적 암시정보, 소설 파친코

1. 들어가는 글

1990년대에 들어 각광을 받은 번역학에서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 즉 “언어 차원을 뛰어넘어 번역과 문화 간의 상호 작용, 즉 문화가 번역에 영향을 주고 제약하는 양태와 맥락, 역사, 관습 등의 보다 광범위한 이슈들에 초점”(먼데이(Munday) 198)을 맞추는 연구 흐름과 함께 교육적 차원에서도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적용 필요성이 높아졌다. 번역가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중재자이며, 출발언어나 도착언어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출발문화와 도착문화에도 해박해야 한다(11)고 한 카탄(Katan)의 언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번역 교육은 언어적 차원만이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전문 대학원 교과과정과는

달리 학부 학생들은 졸업 후 일반 기업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한다는 점(남원준 26; 조성은 168)을 고려하면, 학부에서의 통번역 학습은 전문 통번역 교육에 더해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영미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등 문화적 측면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조성은 187).

이때, 문화(culture)는 가장 정의하기 복잡한 영단어(윌리엄스(Williams) 49)로 꼽힐 만큼 복잡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보다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한 문화에는 있지만 다른 문화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의미가 상이한 문화특정 항목(culture-specific items)은 번역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 어휘 차원에서 다양한 번역 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되어 왔다. 또한 문화는 문화특정항목으로 대변되는 표층의 층위뿐만 아니라 관습, 가치 등 심층적인 층위로 구성(홀(Hall) 39)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문화의 심층적인 부분들이 번역 교육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문학작품은 언어 내외적으로 문화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많이 담고 있기 때문”(권오숙 267)에 문학작품의 번역에서 문화의 다층성이 종합적으로 교수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는 학부 번역교육이 문화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기계번역을 활용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미권에서 출판된 문화텍스트(소설 『파친코』, *Pachinko*)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번역 실습수업에 적용하여,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논의를 끌어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그 양상에 대해 분석하겠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부 문화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할 때 학생들의 논의와 사유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2. 학부 번역수업에서 문화텍스트 기계번역의 활용 필요성

문화인류학자인 홀은 문화를 빙산에 비유하며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부분인 기술 문화(Technical Culture)와 수면 아래에 보이지 않는 공식 문화(Formal Culture), 비공식 문화(Informal Culture)로 구분하였다(186). 홀 이외에도 여러 문화학자들은 문화를 여러 층위로 분류하곤 하는데(빅터(Victor), 홉스테드(Hofstede)), 대부분 관찰가능성(observability), 구체성(concreteness), 의식성(consciousness)을 그 기준으로 한다(이건표(Lee, Kun-Pyo)). 기술 문화는 관찰 및 기록이 가능하고 의식적인 행동들로 의식주, 기관, 언어 등이 이 층위에 포함된다. 공식 문화는 처음에는 학습을 통해 습득하였으나 일상이 된 것으로 관습, 생활양식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비공식 문화는 한 문화 안에서 너무 당연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공유되는 시공간에 대한 관념, 사고방식 등을 나타낸다(카탄 43). 특히 이러한 문화 구분은 홀의 고맥락 언어와 저맥락 언어 구분의 기반이 되는데, 의사소통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는 직설적이고 분명한 표현을 선호하는 반면 한국어는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맥락의존성이 높다.

출발 텍스트에서의 기능과 함축된 의미가 도착텍스트로 전이될 때, 도착문화권에 부재하거나 입지가 달라 번역의 문제를 일으키는 문화특정항목은 빙산이론에 따르면 수면 위로 드러나는 기술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그간 문화 관련 번역 연구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주제이다. 문화특정항목을 지칭하기 위해 학자들마다 문화 용어(cultural word), 문화소(cultureme), 문화적 지시체(cultural reference)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번역이 이루어지는 양쪽 문화의 문화특수성을 전제로 하며 텍스트로 형상화 되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프랑코 아이헬라(Franco Aixelá)에 따르면, 문화특정항목은 출발문화에 한정되는 체제와 목표를 표현하거나 도착문화에 이질적인 관습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며 그 예로 지역시설, 거리, 역사인물, 장소명, 인명, 정기 간행물, 예술작품 등이 있다(59). 같은 맥락으로 뉴마크(Newmark)는 문화특정항목을 생태, 인공물인 물질문

화, 사회문화, 기관과 관습, 몸짓과 습관으로 구분하였다(95). 이처럼 문화특정항목은 텍스트 내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요소이기 때문에 번역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부 수준에서도 분류 및 범주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번역 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있다. 김효중은 번역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번역 능력을 언어 능력과 문화 능력으로 구분하며, 문화 능력이 문화소를 인식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한 바 있고(55), 이에 대해 김민영은 언어교육 측면에서 문화소를 번역 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출발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절한 전략을 고민하도록 하여 언어 능력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번역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며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39). 실례로, 남원준(Nam, Won Jun)은 2011년 논문을 통해 학부 통번역 전공생들이 한국의 문화특정항목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성공적인 문화적 소통을 위해 다양한 번역 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통번역 현장실습 수업을 설계하여 보고하였다.

번역시 표층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문화특정항목 이외에, 텍스트 상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맥락과 문화적 암시정보(김순영 3) 역시 문학텍스트 번역시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이다. 맥락은 ‘특정 언어 요소가 속해 있는 텍스트’(두보이스(Dubois) 외 116; 조준형 230 재인용)로, 맥락을 파악한다는 것은 텍스트 속 다른 언어 요소들, 즉 문장의 앞뒤 관계를 살펴 독자가 텍스트 상에서 의미를 유추하는 것을 의미한다. 맥락은 또 ‘하나의 발화가 창출되는 사회문화적 배경’(두보이스 외 116; 조준형 230 재인용)이기도 하다. 이 경우는 별도의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맥락에서 이 둘을 더 세밀하고 분명히 구분하기 위해 후자를 문화적 암시정보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맥 혹은 맥락효과로 원천 문화 독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어서 텍스트 상에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지만, 동일한 문화적 맥락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목표 텍스트 독자들의 경우에는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김순영 2). 같은 맥락에서 번역가의 문화 능력을 강조한 김효중(11)은 특정 문화권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문화적으로 자명한 사실을 ‘상황문맥’이라고 지칭하였다. 예컨대 시골집 대문 앞에 걸린 새끼줄을

보고 아기의 탄생과 관련된 의미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문맥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화적 중재자로서 번역가는 원문의 문화적 맥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번역 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부 수업에서 문화적 요소들을 텍스트 내·외부에서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다루는 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이론과 문화번역 교육 관련 선행연구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번역 교육 관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화적 요소를 <표 1>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홀의 문화 층위 분류에 따른 문화적 요소

홀의 문화 층위	문화적 요소	내용
기술 문화	문화특정항목	관찰이 가능한 텍스트 상의 어휘로 문화특정한 용어, 표현 등
공식 문화	맥락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 문화의 관습 및 텍스트 상의 요소들로 파악이 가능한 정보
	문화적 암시정보	의미 파악을 위해 특정한 문화에서 공유되는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이 필요한 경우

문학텍스트를 다루는 학부 번역수업에서는 텍스트 상에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표층적 문화 요소와 어휘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텍스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해 파악해야 하는 심층적 문화 요소(공식 문화 및 비공식 문화)를 모두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비공식 문화는 시공간에 대한 인식, 세계관 등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의 영역이기에 학부 차원에서 상세히 다루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해당 교육 실습에서는 논외로 한다. 문학번역 시 표층적, 심층적 문화 요소를 모두 정확하게 파악하여 번역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도록 하는 교육 목표를 보다 명료하게 하기 위해 문화 요소를 <표 1>과 같이 문화특정항목, 맥락, 문화적 암시정보로 구분하고 이를 본고 3장에서 학부 번역 교육 실습의 토대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계번역이 학부 번역수업에서 사유 확장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더 나아가 기계번역을 학습 도구로 활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텍스트는 무엇이며 번역 교육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로 확장한다. 번역 실습에서 학생들이 기계번역을 활용하면 기계번역의 오류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성찰하게 되면서 ‘번역’이라는 행위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은 결국 번역에 대한 사유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아크바리 문렉, 세포라 쿠 마흐디 (Akbari Motlaq & Sepora Tengku Mahadi 2020). 또한 외국어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하여 교육적 의미를 살펴본 많은 연구가 기계번역이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학습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바히리, 마흐디(Bahri & Mahadi) 2016; 코리아(Corra) 2011; 갓윈-존슨(Godwin-Jones) 2011).

그렇다면 기계번역 실습에 적합한 텍스트로는 무엇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기계번역에 가장 효과적인 텍스트는 정보적 텍스트(마승혜 72; 윤미선 외 54)로 언급된다. 이는 기계번역 결과물이 다른 유형의 텍스트보다 좋아 포스트에디팅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학부 번역수업에서도 정보적 텍스트를 활용한 기계번역 실습(윤미선 외 54)이 주를 이루다보니 현재까지 다른 유형의 텍스트, 특히 기계번역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는 문화적 요소가 갖든 텍스트를 적용해본 사례는 매우 드물다. 그렇지만 파다에 이와 파데이 라드(Fadaei & Fatehi Rad)의 연구를 살펴보면 번역수업에서 문화 텍스트를 기계번역 실습에 적용해보는 것이 전혀 무의미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활용했을 때 번역에 대한 학생들의 사유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문화특정항목의 기계번역을 다룬 것으로, 할레드 호세이니(Khalid Hosseini)의 영어 소설 『연을 쫓는 아이』 (*The Kite Runner*, 2003)를 분석텍스트로 삼아 문화특정항목을 추출한 후, 페르시아인 인간번역과 기계번역(Google 엔진)을 비교하여 문화특정항목의 번역 전략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인간번역과 기계번역 모두 원본 텍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큰 주제를 손상시키지 않고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텍스트 내 배경이 아프가니스탄이고, 번역한 언어가 페르시아어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문화적 근접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간번역이 원본 텍스트의 작

품성을 창의적이면서 더 아름답게 잘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계번역은 이해할 수 없는 번역 결과물을 생산해 내기도했다. 또한 이 연구는 문화특정항목이 기계번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번역가는 출발문화권과 도착문화권에 대한 광범위한 문화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함을 제안한다. 결국 이 연구는 학부 번역교육 수업에서 문화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언어쌍(예컨대, 한국어와 영어)의 문화적 텍스트를 번역할 경우 기계번역을 어떻게 활용해야 효과적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지 고민하게 한다.

3. 기계번역을 활용한 연구방법 및 분석 텍스트

문화텍스트의 기계번역을 활용한 번역 수업은 서울 소재 대학의 학부 통번역 전공과목으로 개설된 ‘문화적 맥락에서의 번역(Translation in Cultural Contexts)’ 과목에서 진행되었다. 문화적 맥락에서 번역을 분석하고 실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해당 수업은 이론을 통해 문화의 개념과 문화적 맥락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한 번역 텍스트에 적용하여 실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부 3학년 과목으로 개설된 해당 수업의 수강 인원은 대부분 통번역 전공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수업이 진행된 2022년 1학기에는 총 27명의 학생들이 수강하였다(통번역전공 22명, 영문학전공 2명, 영어학전공 2명, 독일어전공 1명, 경영전공 1명). 수업 진행에 앞서 진행한 인식 조사에서는 기계번역 사용 경험과 기대에 대해 조사하였다. 소설 텍스트의 번역에 기계번역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76%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소설 번역에 기계번역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은 “소설 번역에서는 어투, 문화소 등 단순 의미 외에도 생각해서 번역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계번역 후 수정을 거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직접 번역하는 것이 덜 번거로울 거라고 생각했다”, “문학 작품은 기계번역을 돌리면 좋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번역기를 쓰더라도 단어들이나 문장 일부 단위로만 하고 전체 텍스트를 돌린 적은 없다”, “기계번역에 대한 신뢰도가 낮

다” 등의 의견을 보이며 문화특정항목이 많이 등장하는 소설의 경우 기계번역의 품질이 일반 기술 텍스트보다 낮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또한 72%의 학생들이 문화텍스트의 기계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16%의 참여자는 매우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단지 12%에 해당하는 학생들만이 정확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수용성 측면에 대한 문항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는데, 단 한 명의 학생만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답했고, 약 90%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않거나 매우 자연스럽게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여러 문항들의 답변을 종합해 볼 때 문화특정항목의 기계번역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는 정확성 측면에서도, 수용성 측면에서도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다수의 학생들은 높은 문화적 배경지식을 요구하는 문화특정항목의 경우 기계번역이 번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식 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학생들은 번역시 문화적 배경지식이나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기계번역이 적절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지점을 문화텍스트의 번역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반영하여 활용하고자 2주에 걸친 실습수업을 계획하였다.

문화텍스트를 기계번역에 적용해보고 그 교육적 함의를 고찰하기 위하여 문화적 요소가 다수 포함된 영어 소설을 실습 자료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료는 소설 『파친코』(*Pachinko*)로, 한국계 1.5세인 미국 작가 이민진이 2017년 미국에서 출간한 작품이다. 『파친코』는 2017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등극했을 뿐 아니라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또한 극찬한 작품이기도 하며, 한국어 포함 전 세계 33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2022년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애플 티비+를 통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드라마로 각색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번역을 비교해보거나 소설에서 영화로의 각색을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작품은 문화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 활용가능성을 고찰하는 데 실습 자료로도 가치가 충분하다. 우선 해당 소설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부터 해방 이후인 1980년대까지 4대에 걸친 재일교포(소설 속에서는 자이니치로 불림)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경남 영도에서 일본으로 이주해 간 주인공 선자와 영도에 남

아있는 선자의 어머니, 그리고 일본에서 낳은 선자의 아들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주로 한국과 일본을 배경으로 한다. 즉, 소설은 영어로 쓰였으나 한국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아픔을 담은 한국 가족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며, 따라서 한국 및 일본의 문화적 요소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는, 문화적 혼종성을 내포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정리하자면, 소설 『파친코』는 원문이 영어로 쓰였으나 한국 문화와 관련된 요소들이 다수 등장하므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배경지식을 요하지 않으면서도 흥미를 유발하기에 적합한 텍스트이며, 특히 문화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언어쌍(영어에서 한국어로)의 기계번역에 활용되는 만큼 그 결과물에 대해 학생들이 더욱 활발하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교수자는 먼저 학생들에게 텍스트의 전반적인 내용과 배경에 대해 소개하였다. 수업시간에 사용하는 번역 텍스트는 방대한 전체 소설 중의 일부로, 다양한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단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등장인물들의 관계와 해당 상황을 공유하였다. 이후 출발 텍스트 일부와 기계번역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개인 과제를 학생들에게 부여하였다. 학생들은 이 과제를 통해 어휘 및 배경지식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가장 적합한 번역 방법을 고민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강의실에서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다. 문학 텍스트의 기계번역에서 문화 요소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발점을 제공하기 위해, 『파친코』에서 문화특정항목, 맥락, 문화적 암시정보 차원에서 논의할 지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발췌한 후 구글과 파파고의 기계번역 결과를 원문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더 나은 번역을 고르고 그 이유를 토론해 보라는 과제를 주었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텍스트는 <표 2>, <표 3>과 같다. 이때, ST는 『파친코』, MT1과 MT2는 각각 파파고, 구글 번역의 결과물이다.

첫 번째 예문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1953년, 오사카에서 주인공인 선자와 어머니인 양진이 만나 만주로 떠난 동희와 복희의 소식을 묻는 장면이다. 동희와 복희는 자매이고 부모를 잃은 고아로 양진의 하숙집에서 일을 거들다가 만주로 떠난 인물들이다. 해당 예문은 등장인물들의 이름(고유명사), 한국 전쟁 등의 문화특정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맥락을 고려하면 등장인물의 관계에 따라 호칭 및 존칭, 높임말의 사용 등이 번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ST1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동희와 복희가 만주에서 ‘위안부’로 배치되었다는 것은 문화적 암시정보에 해당한다. 한편 두 번째 예문은 1989년 도교를 배경으로 하는 장면으로, 솔로몬을 따라 일본에 온 재미교포 피비가 재일교포들이 일본인들에게 받는 멸시의 부당함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이 예문 역시 ‘Kankokujin or Chosenjin’ 등의 문화특정항목뿐만 아니라 한국 여권을 가지고 다니는 것의 의미, 한 쪽을 택해야 했던 역사적 배경 등 맥락과 문화적 암시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토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예문으로 선정하였다.

〈표 2〉 과제 텍스트 1

ST	MT1	MT2
<p>“I still think about our girls,” Yangjin said. “Donghee and Bokhee? Didn’t they find work in China?” “I shouldn’t have let them go with that smooth-talking woman from Seoul. But the girls were so excited about traveling to Manchuria and earning money. They promised to return when they made enough to buy the boardinghouse. They were good girls.” Sunja nodded, recalling their sweetness. She didn’t know people like that anymore. It seemed as if the occupation and the war had changed everyone, and now the war in Korea</p>	<p>"저는 여전히 우리 딸들에 대해 생각합니다,"라고 양진은 말했다. "동희랑 복희?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그 말 잘 듣는 여자와 함께 그들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소녀들은 만주로 여행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매우 흥분했다. 그들은 하숙집을 살 수 있을 만큼 벌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좋은 소녀들이었어요." 순자는 그들의 달콤함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알지 못했다. 마치 점령과 전쟁이 모두를 변화시켰고, 이제 한국의 전쟁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때 마음이 여렸던</p>	<p>양진은 “아직도 우리 소녀들을 생각한다. ‘동희와 복희? 중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잘 통하는 서울 여자랑 같이 보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소녀들은 만주로 여행을 가서 돈을 버는 일에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들은 하숙집을 살 만큼 돈을 벌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좋은 소녀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의 달콤함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점령과 전쟁이 모든 사람을 바꾼 것 같았고, 이제 한국 전쟁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때 다정했던 사람들은 경계하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가장 어린</p>

<p>was making things worse. Once-tenderhearted people seemed wary and tough. There was innocence left only in the smallest children. “At the market, I hear that the girls who went to work in factories were taken somewhere else, and they had to do terrible, terrible things with Japanese soldiers.” Yangjin paused, still confounded. “Do you think this can be true?”</p>	<p>사람들은 조심스럽고 강인해 보였다. 가장 작은 아이들에게만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시장에서는 공장에 출근한 소녀들이 다른 곳으로 끌려가 일본 군인들을 상대로 끔찍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야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진은 멍칫하면서 여전히 당황했다. "당신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나요?"</p>	<p>아이들에게만 순수함이 남아 있었다. “시장에서 공장에 다니던 소녀들이 다른 곳으로 끌려가서 일본군과 끔찍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 양진은 여전히 당황한 채 말을 멈췄다.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p>
--	---	--

〈표 3〉 과제 텍스트 2

ST	MT1	MT2
<p>“In America, there is no such thing as a Kankokujin or Chosenjin. Why the hell would I be a South Korean or a North Korean? That makes no sense! I was born in Seattle, and my parents came to the States when there was only one Korea,” she’d shout, relating one of the bigotry anecdotes of her day. “Why does Japan still distinguish the two countries for its Korean residents who’ve been here for four fucking generations? You were born here. You’re not a foreigner! That’s insane. Your father was born here. Why are you two carrying</p>	<p>"미국에는 칸코쿠진이나 조선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왜 남한 사람이거나 북한 사람이겠어? 말도 안 돼요! 저는 시애틀에서 태어났고, 제 부모님은 한국이 하나밖에 없었던 때 미국으로 오셨습니다."라고 그녀는 소리치며 그녀의 하루 동안의 편협한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일본은 4대째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을 위해 아직도 두 나라를 구별하는가? 넌 여기서 태어났어 당신은 외국인 아니에요! 이건 미친 짓이야. 네 아버지는 여기서 태어났어 너희 둘은 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니? 그것은 이상하네요. 그녀는 한반도가 분단된 후 제일</p>	<p>“미국에는 칸코쿠진이나 조선진 같은 건 없습니다. 나는 대도체 왜 남한이나 북한인이 되었을까? 말도 안돼! 저는 시애틀에서 태어났고 한국이 하나였을 때 부모님이 미국에 오셨습니다.”라고 그녀는 당시의 편협한 일화를 이야기하며 소리쳤습니다. “일본은 왜 4대에 걸쳐 한국에 온 조선인을 두고 두 나라를 구별하는 겁니까? 당신은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외국인 아니입니다! 그건 미친 짓이야. 당신의 아버지는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여권을 왜 들고 다니세요? 이상해.” 그녀는 한반도가 분단된 후 제일조선인들이 종종 한 번 이상 편을 선</p>

<p>South Korean passports? It's bizarre." She knew as well as he did that after the peninsula was divided, the Koreans in Japan ended up choosing sides, often more than once, affecting their residency status. It was still hard for a Korean to become a Japanese citizen, and there were many who considered such a thing shameful—for a Korean to try to become a citizen of its former oppressor.</p>	<p>한국인들이 결국 한 번 이상 편을 들어 그들의 재류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다. 한국인이 일본 시민이 되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고, 한국인이 이전의 억압자의 시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p>	<p>택하여 그들의 체류 신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와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 국민이 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고, 한국인이 과거 압제자의 국민이 되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p>
---	---	--

학생들은 그룹 토론을 통해 번역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이러한 실습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결과물의 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텍스트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보고 서로 논의함으로써, 문화적 중재자로서 문화텍스트를 번역할 때는 어떠한 부분에 유의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인지하며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4. 『파친코』의 기계번역 결과 논의 분석

소설 『파친코』(ST)의 기계번역 결과 파파고(MT1)와 구글(MT2) 모두 문화적 요소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한계를 보였으며 많은 오류를 생산해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기계번역의 오류를 지적하고, 시대적 배경 혹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오류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논의를 이어갔다. 4장에서는 학생들의 논의 과정에서 앞으로 번역 교육에 참고해야 할 유의미한 점을 <표 1>에서 제시한 문화특정항목, 맥락, 문화적 암시정보에 입각하여 기술하였으며, 논의 내용은 편의상 전체 9개의 그룹을 그룹

A, B, C, D 등으로 표기하였다.

첫째, 학생들은 원문에서 지역명, 고유명사, 생활양식 등의 문화특정항목을 찾아내고 기계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진 점과 그렇지 못한 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그 중에서도 고무적인 논의는 몇 그룹에서 문화특정항목을 역사적 맥락과 연결지어 조금 더 깊게 생각하려는 시도였다. 예컨대, <과제 텍스트 1>에서는 원문 ‘It seems as if the occupation and the war had changed everyone, and now **the war in Korea** was making things worse.’의 기계번역 결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사실 MT1이랑 MT2가 비슷하게 번역이 되긴 했지만 MT1에서는 이 ‘the war in Korea’가 ‘한국의 전쟁’이라고 번역된 반면에 MT2에서는 ‘한국 전쟁’이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의미로 봤을 때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한국 전쟁’이 6.25를 말한다**는 것을. 그런데 이게 전쟁의 고유명사로 봤을 때, **‘한국의 전쟁’보다 ‘한국 전쟁’이 이것을 가리키는 지칭표현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 (그룹 C, 밑줄은 연구자 강조)

즉, 학생들은 원문에서 지칭하는 ‘the war in Korea’가 6.25전쟁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여 고유명사로써 문화특정항목으로 지목하였으며 이에 더 어울리는 번역으로 ‘한국의 전쟁’보다는 ‘한국 전쟁’을 선택하였다. 다른 그룹들 역시 비슷한 의견이 내놓았다.

<과제 텍스트 2>에서는 원문 ‘In America, there is no such thing as a **Kankokujin** or **Chosenjin**. Why the hell would I be a South Korean or a North Korean?’에서 ‘Kankokujin’과 ‘Chosenjin’을 문화특정항목으로 지목하며 기계번역 결과에 대해 “MT1이나 2 모두 칸코쿠진이나 초센진이 아닌 한국인이나 조선인으로 번역했어야”라고 하거나 “아니면 Chosenjin이 비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살리는 것이 맞을 것 같다(그룹 D)”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그룹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도 있었다.

‘Chosenjin’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간 비하단어고, ‘Kankokujin’은 한국인이거든요. ‘Kankoku’가 한국이고 ‘jin’이 사람이라서 derogatory term(비하적인 표

현)은 아닌데, [...] 약간 그거 아닐까요? 남한이랑 북한이랑 나뉘었잖아요. **그러면서 남조선은 대한민국이 되고, 위쪽은 북조선이 되면서 ‘Kankokujin’은 예를 들어서 한국 남한사람, ‘Chosenjin’은 북한사람, 약간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을 드는데 잘 모르겠어요. 밑에 ‘Why the hell would I be a South Korean or a North Korean?’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룹 B, 필자 강조)

즉, 일부 학생들은 기계번역 결과물을 보고 어느 것이 더 나은 번역인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어휘의 의미를 역사적 맥락 안에서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대부분의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Seoul(서울)’, ‘Manchuria(만주)’, ‘Seattle(시애틀)’ 등의 지역명과 ‘boarding house(하숙집)’ 정도의 문화양식을 문화특정항목으로 언급하였고, 어떤 그룹에서는 논의 중에 “문화특정항목 번역관점에서 토론할 것이 일어나는 생각이 든다(그룹 A)”라며 의문을 제기하거나 또는 “문화특정항목으로만 말하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그룹 E)” 혹은 “문화특정항목을 제대로 못 찾았다(그룹 F)”고 밝혔다. 즉, 문화특정항목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 문화텍스트를 적용한 번역 수업을 진행할 때는 이론을 토대로 한 개념정리가 더욱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학생들은 원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맥락상 문화적 요소로 판단되는 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체로 등장인물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기계번역이 표현해 내지 못한 어투 및 존칭의 활용 등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과제 텍스트 1>에서는 양진과 선자가 모녀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신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나요?”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딸과 어머니의 관계에서는 너무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그룹 C)”라고 언급하였고, <과제 텍스트 2>에서는 솔로몬과 피비가 연인관계인 점을 파악하며 “연인관계라면 반말을 사용해도 괜찮다. 다만 말투의 일관성이 없다(그룹 B)” 또는 “연인사이인 것을 고려했을 때 존댓말 처리가 너무 어색하다(그룹 C)” 등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즉, 학생들은 기계번역 결과물을 보고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고려해야 할 등장인물간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법한 어투와 표현 등을 언급하며 번역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

맥락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논의는 기계번역상의 오류는 아니지만 당시 역사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무엇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다. 학생들은 <과제 텍스트 2>에서 원문 “[...] there were many who considered such a thing **shameful—for a Korean to try to become a citizen of its former oppressor.**”의 기계번역 결과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본이 우리를 억압했으니까 그런 일본의, 그것도 한국인이, 일본인이 되고자 하는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한국인이 되어서 쪽팔리지도 않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부끄럽게 여긴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치스러움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억압된 경험에서 오는 강한 감정이여서. (그룹 B, 필자 강조)

원문의 ‘Shameful’은 기계번역 결과 ‘수치스럽게’와 ‘부끄럽게’로 표현되었는데, 두 표현 모두 오류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엄밀하게 말하자면 어휘 자체로는 문화적 요소라고 할 수 없다. 다만 학생들은 시대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 이후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터를 잡고 생활하는 한국인들의 상황과 감정을 비추어볼 때 원문의 해당 문장은 한국어로 번역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표현으로 생각했으며, 대부분이 그룹이 ‘수치스럽게’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즉, 학생들은 원문 속에 내포된 감정을 한국어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이는 원문에 대한 배경지식은 물론 맥락까지도 완벽히 이해해야 가능한 논의였다.

하지만 교수자가 수업시간에 원문에 대한 배경지식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일부 그룹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원문의 배경지식을 습득하기 어려웠으며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여러 차례 되묻거나, 원문 속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기도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텍스트를 적용하여 교육을 할 때는 교수자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원문에 대한 충분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계번역처럼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번역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번역가가 문화적 중재를 하기 위해서는 원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함을 교육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점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한 문화텍스트

의 번역 실습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몇몇 그룹은 원문에 암시적으로만 표현되었으나 목표문화권 독자라면 오랜 시간 학습되어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숨은 내용을 찾아내었다. 다음은 <과제 텍스트 1>에서 위안부와 관련된 정보가 암시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원문 ‘At the market, I hear that the girls who went to work in factories were taken somewhere else, and they had to do terrible, terrible things with Japanese soldiers.’의 기계번역 결과와 관련된 논의이다.

우리가 식민지 때 겪었던 역사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둘 다 오역인 게 ‘저질렀다고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당했던 건데 뉘앙스가 다르게 전달된 것 같아요. (그룹 G, 필자 강조)

유사하게 “마지막 대화하는 부분이 위안부 관련된 내용인데, 일본 군인들 상대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다(그룹 F)”, “둘 다 ‘had to do terrible things with Japanese soldiers’ 할 때 우리는 역사를 어느 정도 아니까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직역 되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그룹 H)”, “MT1은 ‘일본군을 상대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완전 주객전도를 해버렸고, MT2는 ‘일본군과 함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둘 다 일본군한테 당한 거라는 걸 파악하지 못했다(그룹 I)”라고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위안부에 대한 논의 외에도 기계번역 결과물을 보고 더 고도의 역사적 배경지식을 끌어내어 논의를 확장한 그룹이 있었다. <과제 텍스트 2>에서 원문 ‘She knew as well as he did that after the peninsula was divided, the Koreans in Japan ended up choosing sides, often more than once, affecting their residency status.’의 기계번역 결과물인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다음의 논의를 살펴보자.

이거는 제가 디스포리아 문학을 좋아해서 알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가 분단된 상태로 있었는데, 일본에서 사는 한반도 출신의 사람들을 두 가지로 [...] 재일조선인, 재일한국인 이렇게 나누는데, 재일조선인은 북한에서 온 교민이고 한

국민은 남한에서 온 교민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나 선자는 북한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일조선인’이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한국, 그 민주 진영에서 온 것이 아니라 공산 진영에서 온 교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MT1이 MT2보다는 오역이 적었다고 생각해서 MT1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룹 C, 필자 강조)

‘Koreans in Japan’의 기계번역 결과물인 ‘재일한국인’과 ‘재일조선인’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역사적 배경지식이 있더라도 논의하기 어려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원문의 맥락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여 한국어로 번역할 때 맥락상 어느 표현이 더욱 적절할지 고민하였다. 다른 그룹 역시 위의 사례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는데, 교수자의 사전 배경설명을 듣고 “MT1의 ‘재일한국인’이 맞는 것 같다. 배경설명에서 솔로몬 얘기가 나왔을 때가 1989년이라, 그때는 비교적 현대에 가까워 ‘조선인’이런 표현이 나올 역사적 배경은 아니고 ‘재일 교포’ 이런 단어가 대두될 시기 인 것 같다.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재일조선인’보다는 ‘재일한국인’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그룹 B)”, 또는 “after the peninsular was divided라면 조선은 이미 끝났을 때니 ‘재일조선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재일한국인’이라고 하는게 맞거나 ‘재일교포’가 가장 맞는 말일 것 같다(그룹 E)”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아쉬운 점은 교수자가 처음 <과제 텍스트 2>를 선정하면서 학생들이 활발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들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에 거주 하던 한국 교민이 한국 국적과 일본 국적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만 했던 심층적 문화 정보를 파악하여 기계번역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과제 텍스트 1>의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상황을 오역이 될 수 있는 기계번역 결과물을 통해 모든 그룹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 생각했지만 놓친 그룹이 많았다. 이에 번역 교육에서 문화텍스트 속에 숨겨진 문화적 암시정보를 찾아내어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점에서 오류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문화텍스트의 기계번역을 활용한 실습 및 논의 과정은 학생들의 사유를 확장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방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5. 학부 문화번역 수업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한 교육방안 제언

기계번역을 활용하여 학부 번역교육이 문화적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논의와 사유 확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문화텍스트의 기계번역을 적용한 번역 수업을 진행할 때는 문화 및 문화특정 항목에 대한 개념정리가 더욱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원문에서 문화특정항목을 찾아내고 기계번역이 제대로 이루어진 점과 그렇지 못한 점 중 심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화특정항목 그 자체만을 주목하고 주어진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the war in Korea’라는 표현만으로는 어떤 전쟁인지 특정할 수 없으나 주어진 문화텍스트의 맥락상 ‘6.25 전쟁’임을 파악하고 논의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생들이 문화번역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어휘에 매몰되지 않고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끔 교수자는 더욱 심층적인 측면에서 문화의 정의와 개념을 사전에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계번역을 활용하지 않은 문화번역 수업에서도 문화 및 문화특정항목에 대한 교수자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나, 기계번역을 적용한 수업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오류를 학생들이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 능력’ 상황이 주요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화에 대한 명료하고 심도 있는 개념 이해가 요구된다고 본다.

둘째, 원문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맥락상 문화적 요소로 판단되는 점들에 대해 학생들의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해당 원문에 대한 충분한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소설을, 그중에서도 『파친코』 처럼 문화적 혼종성을 내포

하고 있는 텍스트를 기계번역의 원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텍스트의 배경이나 등장인물 간의 관계 등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는 학생들이 문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수자는 기계번역의 원문을 사전에 제공하고 학습자가 원문의 배경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문화텍스트 속에 숨겨진 문화적 암시정보를 찾아내어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을 학습목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법적, 어휘적 차원의 오류가 많은 기계번역에서 문화적 암시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원문과 기계번역 결과를 대조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적 지식을 심분 활용하게 된다. 원문에 암시적으로만 표현되었으나 목표문화권 독자라면 오랜 시간 학습되어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암시정보를 기계번역 결과물에서 찾아내고 설명하는 논의를 장려함으로써 양쪽문화권에 대한 문화적 요소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화적 중재자로서의 번역가의 역할을 강조할 수 있다.

문화번역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냄에 있어 기계번역 오류가 많을수록 학생들은 더욱 텍스트 분석에 몰입하고 풍성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논의 내용을 사례로 제시함으로써 번역 수업에서 문화텍스트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사유를 확장하고 문화적 중재자로 성장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인 교육 방식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번역 수업에서 문화텍스트의 기계번역 결과물을 논의 도구로 활용함에 있어 학생들의 논의를 더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계번역의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수요가 현장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기계번역을 활용한 번역 수업 역시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문화번역에 대한 사유 확장 도구로서 기계번역 활용을 제시한 본 연구를 계기로 기계번역을 활용한 다양한 교수 방안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인 용 문 헌

- 권오숙. 「한국 문학 텍스트 영역(英譯)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의 경향 연구」. 『통번역학연구』, 18권 3호, 2014, 263-89쪽.
- 김민영.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문화소 번역교육 연구」. 『인문학연구』, 122권, 2021, 33-55쪽.
- 김순영. 「한영 문학 번역에서 문맥과 문화적 암시정보 (cultural subtext)의 처리」. 『통역과 번역』, 14권 1호, 2012, 1-19쪽.
- 김효중. 『새로운 번역에 대한 패러다임』. 푸른사상, 2004.
- 남원준. 「학부 통번역교육에 관한 일고찰 - 선행연구의 주요 논점에 관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3권 1호, 2009, 21-51쪽.
- 마승혜.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에 대한 경험적 고찰: 학부 교육 과정 및 결과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2권 1호, 2018, 53-87쪽.
- 윤미선, 등, 공저. 「영어-한국어 언어쌍에 적합한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번역학연구』, 19권 5호, 2018, 43-76쪽.
- 조성은. 「학부 통번역학과의 교육과정 연구: 재학생 대상 실태분석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권 2호, 2007, 163-92쪽.
- 조준형. 「병렬코퍼스에서 맥락 탐색의 의미와 한계」. 『번역학연구』, 13권 5호, 2012, 223-46쪽.
- Akbari Motlaq, Mohamad Djavad, and Tengku Sepora Tengku Mahadi.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using machine translation in translation pedagogy from the perspective of instructors and learners.” *Humanities & Social Sciences Reviews*, vol. 8, no. 4, 2020, pp. 121-37.
- Bahri, Hossein, and Tengku Sepora Tengku Mahadi. “Google Translate as a Supplementary Tool for Learning Malay: A Case Study at Universiti Sains Malaysia.” *Advances in Language and Literary Studies*, vol. 7, no.

- 3, 2016, pp. 161-67.
- Correa, Maite. "Academic dishonesty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Instructors' perspectives." *Modern Journal of Language Teaching Methods*, vol. 1, no. 1, 2011, pp. 65-79.
- Dubois, Jean, et al.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Larousse, 2001.
- Fadaei, Homa, and Neda Fatehi Rad. "A comparative study of Kite Runner and its Persian machine and human renderings: Culture-specific terms in focus." *International Journal of Foreign Language Teaching and Research*, vol. 9, no. 37, 2021, pp. 225-35.
- Franco Aixelá, Javier. "Culture-specific items in translation." *Translation, power, subversion*, edited by Alvarez, Roman and M. Carmen-Africa Vidal, Multilingual Matters, 1996, pp. 52-78.
- Godwin-Jones, Robert. "Mobile apps for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vol. 15, no. 2, 2011, pp. 2-11.
- Hall, Edward T. *Beyond Culture*. Anchor Books/Doubleday, 1976.
- Hofstede, Geert., et al.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Vol. 2, Mcgraw-hill, 2005.
- Katan, David. *Translating Cultures: An Introduction for Translators, Interpreters and Mediators*. St. Jerome, 1999.
- Lee, Kun-Pyo. *Culture and its effects on human interaction with design -with emphasison cross-cultural perspectives between Korean and Japan*. 2001. U of Tsukuba, PhD dissertation.
- Munday, Jerem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ranslated by 정연일, 남원준, Routledge, 2001.
- Nam, Won Jun. "Learning to translate Korean-specific cultural references : A new

T&I curriculum & the undergraduate into-English translation classroom.” *The Journa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Education*, vol. 9, no. 1, 2011, pp. 55-83.

Newmark, Peter. “Translation and culture.” *Meaning in translation*, edited by Lewandowska-Tomaszczyk, Peter Lang, 2010, pp. 171-82.

Williams, Raymond. *Keywords: : a vocabulary of culture and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1976.

Victor, David. *International Business Communication*. Harper Collins, 1992.

<분석 텍스트>

Lee, Min Jin. *Pachinko*. Grand Central Publishing, 2017.

Abstract

Using Machine Translation to translate Culture-Specific Items in Undergraduate Translation Class

Hong, Seung-Ye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on, Miseon (Dongguk University)

Choi, Eun-Kyo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 undergraduate translation course should incorporate more training in cultural aspects. The English novel, *Pachinko*, was used as a translation practice text in the cultural translation class, and machine translation (MT) was applied as a learning instrument. *Pachinko* wa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2017 by Korean American author Min Jin Lee, and tells the story of four generations of Korean-Japanese family members from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o the 1980s after liberation. The novel includes a large number of culture-specific items (CSI) related to Korea, as a result the machine-translated text has many errors. The students discuss what types of CSI are found in the source text (ST), and learn how to better translate these cultural elements in *Pachinko*'s MT results. This study presents three effective methods to educate undergraduate students in cultural translation class. First, the concept of culture and CSI should be more clearly taught. Second, the source text (ST) must be thoroughly explained in order that students can discuss the cultural elements that are not explicitly expressed in the text. Third,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 find implied contextual information in cultural text. This study has shown that MT can be used as a learning instrument to

expand students' thoughts on translation.

Keywords: teaching cultural translation, literary translation, teaching method using machine translation, cultural subtext, *Pachinko*

논문접수일: 2022. 09. 25

심사완료일: 2022. 10. 20

게재확정일: 2022. 10. 24

이름: 홍승연 (제1저자)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강사

이메일: hsy8677@hufs.ac.kr

이름: 윤미선 (공동저자)

소속: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영어영문학과 BK21 미래인재양성사업팀 박사후연구원

이메일: moonruna@naver.com

이름: 최은경 (공동저자)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 강사

이메일: eunyoung.choi@daum.net

